

정현

Chung Hyun



전시명 : 정현

Chung Hyun

일 시 : 2014년 10월 15일(수) - 11월 9일(일) 22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조각 7점, 드로잉 70점

1. 전시 개요

학교재갤러리는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조각가 정현(58) 개인전을 갤러리 본관에서 개최한다. 작가의 열일곱 번째 개인전이자 학교재갤러리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에는 입체 조각과 드로잉 작업이 함께 전시된다.

정현은 재료에 지나친 변형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는 재료와 조용하고 재료가 가진 특성을 잃지 않도록 작업한다. 작가가 선택한 재료는 주로 버려진 철물이다. 작가는 폐기 철물이 품고 있는 힘을 표면 밖으로 끌어내는 것에 주력한다. 그는 버려지고 낡아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침목(枕木), 석탄, 아스팔트 콘크리트, 잡석 등의 재료들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끌어낸다. 이러한 점은 그의 드로잉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주로 콜타르(coal tar) 또는 오일바(oil bar)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이 안료들로 그려진 거칠고 날카로운 결들을 통해 작가는 이미지의 형태가 아닌 재료의 존재감을 전달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조각 작품들은 거칠고 물에 닿아 녹슬어 버린 철물에서 드러나는 질감과 같이 재료가 가진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또한 관객들은 작가의 거칠고 저항적인 용접작업을 통해 철물이 본질적으로 지닌 힘과 무게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시 구성

조각



무제, 2013, 청동, 250x75x60cm

정현에게 '철'은 일의 흔적이다. 주물 공장에서 작품을 청동으로 떠내기 위해 거푸집에 사용된 철근끼리 용접했다 떼어내는 반복적인 작업 끝에는 마치 흠처럼 곳곳에 잇대어 붙인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 '흔적'은 기성품이 지니고 있는 균일성을 지우고, 크기와 모양새가 다르게 각각 조각마다 개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조각을 통해 이상적인 형태나 추상적 개념과 가치를 구현하기보다 그 과정을 담아낸다. 용접된 철근들은 '인체'의 모습으로 거친 세상을 살아온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성찰이다. 작가는 '나무'와 '인체'라는 형태를 이용해 철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용접 작업을 통해 철물들이 품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에 주력한다.

파쇄공



무제, 2013, 철, 110x126x126cm

파쇄공은 본래 무게가 약 16톤인 쇳덩어리다. 자석으로 25미터 높이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려 아래에 있던 쇠 찌꺼기를 용광로에 넣을 크기로 깨트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며 이 파쇄공은 멩개지거나, 찢겨 나가거나, 패이거나, 눌러 멩쳐져 응집된다. 파쇄공은 6~7년 동안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16톤이었던 파쇄공은 그 동안 8톤까지 닳고 그 크기도 줄어들었다. 파쇄공이 닳는 과정에 질곡의 현대사의 시련과 견딤이 담겨있다.

정현은 또한 파쇄공 작업을 통해 '산업 현장의 힘의 축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파쇄공 표면의 선명하게 찍힌 상처들조차 작가는 아름다움 또는 '일의 흔적'이라고 표현한다.

드로잉



무제, 2014, 종이위에 콜타르, 109.5x178.5cm

정현은 일하는 과정 속에서 마주한 작업 최초의 감성들을 잃지 않기 위해 그의 생각과 감성을 일기장에 적듯이 드로잉 작업을 해왔다. 작가는 종이 위에 연필대신 콜타르 또는 오일바를 주로 사용한다. 번개를 맞아 나뭇가지가 갈라진 모습,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나무의 모습을 종이에 담은 작가는 이미지 형태보다 재료가 본질적으로 지닌 거친 성향을 표현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되는 녹드로잉은 철판 위의 드로잉이다. 철을 캔버스에 묻히고 이를 긁어낸 뒤, 물을 뿌리거나 비에 젖어들게 만들어 철판의 녹을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게끔 유도한다. 그의 녹드로잉에는 시간의 흐름, 일의 흔적, 또는 일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작가의 바람이 묻어있다.

3. 전시 서문

영혼의 울림 (Movimento dell'anima)

김영준

조각가 정현의 작업은 '흐름'을 담고 있다. 시간의 흐름, 의식의 흐름, 기(氣)의 흐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시각적 서사시다. 흐르는 세월이 우리네 삶에 남긴 흔적을 오롯이 담고 있는 체험적 기록이다. '흐름'의 속도와 힘, 움직임의 형태화하고 '흐름'의 매개가 되는 공간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창작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작가의 내면으로부터 샘솟듯 흘러나와 시각적 언어로 발현된 창작의지를, 그 힘과 에너지를 세상에 전하는 울림이다.

이번 전시는 그가 어떻게 '흐름'을 담아 왔고 울림을 만들어 냈는지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신작 드로잉 작품들을 이미 발표한 삼차원 작품들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그 동안의 작업들이 형성한 예술적 맥락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는 자리다. 강렬한 존재감으로 그를 세상에 알린 '인체 작업'에서부터 쇠를 부수는 쇠덩어리 '파쇄공 작업'을 거쳐 작가의 골수로 빛은 듯한 종이 위에 그려 낸 '드로잉 작업'까지 '정현표' 예술의 역사를 간결하게 보여 준다.

전시의 주인공은 신작 드로잉이다. 사람의 얼굴을 닮은 것, 나무나 풀처럼 보이는 것, 응축돼 있던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형체 등을 그린 작품들로 전시장 벽면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삼차원 작품이나 지닐 강렬한 법한 힘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함께 전시된 인체 작품, 파쇄공 작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는 끌로 긁고, 정으로 쪼아 내고, 톱으로 썰고, 도끼로 내려찍 듯 연필과 콩테(conté)를 움직여 종이 위에 조각을 했다. 그리고 콜타르(coal tar) 머금은 붓을 휘둘러 팔에서 전해지는 에너지와 그 흐름을 형체화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드로잉'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이 '삼차원작업의물성과존재감'을 지닌 '이차원작업'이라는 것만큼이나 흥미롭고 역설적이다.

디자인(design)과 함께 'disegno'라는 용어이자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드로잉(drawing)'은 직관적 창작의 지, 예술적 충동, 감성의 표출 등 '날것'들을 정제해 완성시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각가 정현의 드로잉은 '날것'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내재하는 창작에너지를 뿜어내듯 발산하는 행위'를 세심하게 다듬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종이 위에 기록한 듯하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드로잉'이 아니라 '스케치'에 더 가까운 것 아닐까. '스케치(sketch)'의 어원으로 지목되곤 하는 이탈리아어 'schizzare'는 '짜내다', '내뿜다'를 의미하는데, 이 곳에 전시되고 있는 '드로잉작업'을 설명하는 데 그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작품에 드러난 연필, 콩테, 또는 붓의 궤적을 찬찬히 살펴 보면 하나하나 섬세하게 조절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뿜는 듯 휘두른 손의 움직임들을 여과 없이 기록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케치'인 듯, '날것'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가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창작에너지를 예술적으로 처리하고 승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예술적으로 거르고 담아 내는 과정을 거쳤기에 그 의식적 행위의 주체인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스케치'가 아니라 '드로잉'으로 구분한 것이다.

어쩌면 '스케치'와 '드로잉'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케치'와 '드로잉'을 구분하는 척도는 완성도인데,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잘 다듬고 마무리해야 완성도가 높은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조차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학적 디테일'에 집착하는 글쟁이에게나 의미 있을 법한 완성도가 '정현 예술'을 논할 때에는 의외로 몹시 중요한 화두가 된다. 그는 '조각의 본질을 힘, 에너지로 파악한다'¹고 털어 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가 힘, 에너지, 물성, 실존, 해방 등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현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명이라 여기는 우직한 작가로만 알

고 있다면 그를 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어떤 기운, 뭐라 규정할 수 없는 힘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섬세함을 겸비한 작가가기 때문이다. 교묘한 기술과 기법에 빠져들거나 화려한 형태와 스타일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의 창작활동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해서, 완성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작업의 완결성을 판단하는 그의 기준과, 그의 작업에서 완성도가 갖는 의미가 남다른 뿐이다.

‘Non finito’. 정현의 작업을 마주하면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예술적 개념이자 조각적 표현 기법이다. ‘Non finito’란 ‘끝나지 않았음’ 또는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일컫는데 ‘의도적으로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로 풀이하면 얼추 뜻이 통한다. 혹은 ‘완성된 미완성’ 아니면 ‘미완성의 완성’쯤으로 요약해도 될 듯 싶다. 표현 기법으로서의 ‘non finito’는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남기는 진한 여운, 완성되지 못하고 ‘날것’과 다름 아닌 상태로 남겨져 있는 물체나 존재가 자아내는 처연함과 비장미 등의 극적효과를 주기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완성된 ‘non finito’ 작품은 강렬한 존재감과 엄청난 표현적 힘을 지닌다. 참으로 ‘정현스러운’ 것들 아닌가. 사실 그의 조각 작업 대부분이 의도된 ‘non finito’는 아닐지라도 ‘non finito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석고로 빚은 형체에 마닐라 삼을 한 겹 한 겹 감아 만든 초기 작품에서부터 침묵, 아스콘, 레진, 그리고 이번에 전시되는 청동 작품들까지 ‘인체 작업’은 거의 모두가 그렇다. 재료, 형태, 작업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근원적 힘을 품고 있는 완성된 날것들이다.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이상적 형태나 추상적 개념과 가치의 완전무결한 구현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어 가는 과정과 순간, 그런 와중에 있는 존재와 그리고 그 모두를 가능케 하는 힘과 행위 자체를 드러내고 담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각가 정현은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와 종종 비교되곤 하는데, 위와 같은 관점으로는 1504년 ‘다윗상(David)’의 완성을 마지막으로 1564년 죽을 때까지 창작 에너지를 ‘non finito’에 쏟아 부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와 더 닮아 있다². 자코메티의 작품들과 정현의 ‘인체 작업’, 특히 초기작들 사이에는 형태적, 시각적 친연성이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자코메티의 작업은 ‘non finito 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실존적 존재, 또는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 있는 전형적 존재를 구현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늘 ‘실존주의적’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에 반해 정현의 ‘인체’ 작업은 흐르는 시간 속의 존재, 기(氣) 또는 에너지의 흐름과 응결이 만들어 내는 그 무엇을 ‘캡처’하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체험적, 현상학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러한 특성은 선문답을 하듯 그가 밝힌 그의 조각관에서도 엿보인다. “하찮게 보이는 것에서 발견되는 가치, 말로 표현되기 이전의 것, 살아있음 그 자체, 날것, 예측을 불허하는 이미지, 느닷없음, 비탄으로부터의 해방,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해매들의 깊이...”³ 궁교롭게도 미켈란젤로의 대표적 ‘non finito’ 작업 ‘노예(Slave)’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돌 덩어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덩어리. 비록 지금은 ‘노예’라 불리고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원초적 힘을 지닌 이 존재에게 이름을 지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정현은 자신의 ‘인체 작업’에 ‘무제’, 즉 제목 없음이란 역설적 제목을 붙였다.

그렇다면 ‘파쇄공 작업’은? 단언컨대 조각가 정현이 만든 최고의 문제작이다. 침묵이나 아스콘으로 만든 ‘인체 작업’과 마찬가지로 ‘누적된 시간이 불려일으키는 인고의 세월, 그 시간의 숙성이 드러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고 싶은’⁴ 마음에서 비롯됐음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이라곤 산업현장에서 철판 등을 부수는 쇳덩어리를 옮긴 것뿐이라 그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Non finito’ 작품도 아니고 ‘미완성의 완성’을 구현하려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작가의 개입을 통해 무언가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작품이라 할 수 있을까? 뒤샹(Marcel Duchamp)의 레디메이드(readymade) 대표작 ‘Fountain(분수)’조차 공장에서 찍어낸 남성용 소변기에다가 자신의 손으로 ‘R. Mutt’이라고 적은 뒤 전시대 위에다가 뒤집어 놓고 ‘Fountain’이라 명명하는 정도의 개입은 있었기에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이다⁵. 최소한의 개입이지만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작업(作業), 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데 파쇄공은 원래 있던 곳에서 전시장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이름조차 없다. 이름이라도 불러주어야 하나의 몸짓이 꽃이 되듯 파쇄공도 쫓겨서에서 다른 무엇이 될 것 아닌가.

파쇄공 작업은 열린 결말이다. 숙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날것이 들려주는 후일담이다. 들고 나고 흐르지만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 기(氣)를 위한 증언이기도 하다. 자신의 작업을 ‘격렬하게 폭발하고 발산한 뒤에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여 더 조용해지고 담담하며, 주장하기보다 성찰하는 것’⁶ 이라고 언명한 작가가 던지 시 던지는 선문답의 화두이다. 닳고 닳아 16톤이 12톤이 될 때까지의 세월과 사건들을 견뎌 온 쫓겨서 안으로 갈무리해 둔 힘,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직관력, 통찰력이 있느냐고 짓궂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다. 어쩌면 그는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어떤 행위의 개입 없이도 ‘파쇄공 작업’이 가능하다고 믿는지도 모르겠다. 부딪히며 닳아 없어진 8톤만큼의 에너지와 절절한 사연들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스러져 가는 쫓겨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인식, 깨달음이 산업폐기물로 제철소 야적장에 방치될 뻔한 쫓겨서를 울림 있는 작품으로 전시장에 놓이게 한 것이니 감상에 젖은 글쟁이의 억측만은 아니리라.

그의 말처럼 조각의 본질이 힘, 에너지라면 그는 힘,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런데 에너지의 본질은 움직임, 흐름이다. 결국 그는 움직임, 흐름을 다루는 사람이란 얘기가 된다.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에 따르면 움직임을 잘 담아낸 작품에서는 ‘영혼의 울림(movimento dell’anima)’이 느껴진다고 한다⁷. 움직임을 담아내고 흐름을 만드는 정현의 작업에서 전해지는 기운, 그것이 바로 ‘영혼의 울림(movimento dell’anima)’이다.

¹정재숙, 「조각가 정현의 세계: 잡초의 생명력에서 작품의 영감 얻어」, 『아산의 향기』, 2007. 여름호.

²‘다윗상’을 끝으로 미켈란젤로가 완벽하게 마무리 손질까지 한 작품은 없다는 것은 필자의 사건임을 밝혀 둔다. ‘노예’ 연작을 포함해 ‘non finito’라고 일컬어지는 작품들이 ‘non finito’ 효과를 내기 위한 의식적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마무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미완성의 것들인지에 관한 논의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도 더불어 밝힌다.

³양정무, 「작가와의 대답: “내 조각은 전위와 후위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올해의 작가 2006: 정현』, 2006.

⁴조은정, 「침묵하는 침묵이 인간상 (대답)」, 『미술평단』, 2001. 가을.5

⁵뒤샹이 멤버로 가입돼 있던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 가 1917년 뉴욕에서 개최하는 전시를 위해 출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서 ‘레디메이드(Readymade)’, ‘다다(Dada)’ 등 당시의 아방가르드 사조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⁶양정무, 「작가와의 대답: “내 조각은 전위와 후위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올해의 작가 2006: 정현』, 2006.

⁷알베르티가 1435년 발표한 화론(畫論) “De pictura”에 따르면 회화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은 생동감 넘치게 묘사한 인체의 움직임에서 나온다고 한다. 알베르티는 그런 최고의 감동을 ‘영혼의 울림(movimento dell’anima)’이라고 표현했는데 작품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은 조소(彫塑)에서도 몹시 중요한 요소임은 불문가지이다.

4. 작가 약력

정 현

1956 인천 출생
198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8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조소과 졸업
1990 파리국립미술대학교 조소과 졸업

현재 홍익대학교미술대학원 교수
서울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4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2 뉴칼레도니아, 프랑스
2011 서울국제조각페스타, 한가람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울
2010 가온갤러리, 인천
2009 금일미술관, 베이징
2008 학교재갤러리, 서울
2007 도쿄 휴머나이트 갤러리, 도쿄
21+ Yo 갤러리, 도쿄
관훈갤러리, 서울
2006 올해의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인천종합문예회관, 인천
2005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2004 김종영미술관, 서울
2001 금호미술관, 서울
1998 레디슨플라자호텔, 서울
프랑스문화원, 서울
1997 원화랑, 서울
1992 원화랑, 서울

그룹전

2014 사유로서의 형식-드로잉의 재발견, 산 미술관, 원주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
2013 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소마미술관, 서울
인사이트, 일우스페이스, 서울
코리아 투머로우, 한가람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울
원, 전등사, 강화
선광미술관 개관기념전, 선광미술관, 인천
한중양국조소예술전, 칭다우, 중국
2012 홍익국제미술제,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스틸 라이프, 포항미술관, 포항

- 창원조각비엔날레, 창원
한국조각전, 피에트라산타, 이탈리아
인천, 조각을 말하다, 가온갤러리, 인천, 서울
- 2011 내일의 조각-기억과 회상, 모란미술관, 서울
아트코러스-21C 현대미술의 조명전, 인천문화문예종합회관, 인천
스터디,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획, 학교재갤러리, 서울
올해의 작가-23인의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한민국 현대미술 100인의 초대-백인백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0 춘추, 학교재갤러리, 서울
젊은모색30주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강진청자아트프로젝트, 강진청자박물관, 강진
한·러국제미술교류전, 모스크바 중앙화가회관, 모스크바
디갤러리, 서울
몸을 탐하다-한의학과 미술의 만남, 사간갤러리, 서울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다시 희망을 그리다: 홍익미대동문회 3인3색전-허백, 배진호, 정현, 가온갤러리, 인천
정현-마크 애쉬튼 2인전, IBU 갤러리, 파리
밀라노조각트리엔날레, 인천특별전시관, 인천
한국 드로잉 30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미래모색, 안동문화예술회관, 안동
서울미술대전: 한국 현대조각2010,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9 한국현대조각의 흐름과 양상,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엔티포즈, 이영미술관, 용인
신호탄 기무사-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예정지, 서울
화해와 화합의 한·일전, 갤러리 쿠오리아, 서울
- 2008 미술의 표정, 개관20주년기념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인생유형시, 개관10주년기념전, 포스코미술관, 서울
평화공간 SPACE·PEACE 개관2주년 기념전, 평화박물관, 서울
- 2007 오색의 공간 그리고 나, 모란미술관, 남양주
부평역사박물관개관기념 백인미술초대전,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서울
비평적 시각, 인사아트센터, 서울
오마주 100(한국현대미술 1970-2007), 코리아아트센터, 부산
공간을 치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6 서울미술대전: 구상조각,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인천-산동대표작가국제미술교류전, 인천종합문예회관, 인천
현대조각 12인 초대전, 조선헌관, 서울
EHS프로젝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더 뉴게이트-이스트 개관기념전, 더 뉴게이트-이스트, 서울
미소, 갤러리 조선, 서울
- 2005 한·일 예술대학교수 초대전, 동경예술대학미술관, 동경, 일본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전시, 경향갤러리, 서울
아프리카 심포지엄 '한국-짐바브웨 국제조각심포지엄', 갤러리 아지오, 양평

- 오늘의 작가,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울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포천
한·일 현대미술초대전,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이태호, 이종빈. 정현, 갤러리 175, 서울
한일예술대학교수 교류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제2회 아지오 국제조각심포지엄, 김바브웨국립미술관, 하라레, 김바브웨
2004 정지와 움직임전, 서울올림픽미술관개관기념조각전, 서울올림픽미술관, 서울
부산비엔날레, 부산
평화선언 2004 세계100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제20회 사라예보 국제 페스티벌, 국립현대미술관, 사라예보, 보스니아
지역과 지역의 만남, 부산조각제, 부산문화회관, 부산
되돌아보는 한국현대조각의 위상, 모란미술관, 남양주
개관 15주년 기념전, 금호미술관, 서울
2004-Works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홍익조각회전, 관훈미술관, 서울
2003 풍경 속의 미술, 헤이리 아트벨리, 파주
베이징국제미술비엔날레, 베이징
집합과 비전, 종로갤러리, 서울
도시와 인간, 코리아 디자인센터, 성남
한·중현대조각전, CASO, 오사카, 일본
조각의 환기: 물성과 공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신체풍경, 로댕갤러리, 서울
거리의 회복: 도시를 위한 아트오브제, 흥국생명빌딩, 서울
조각이란 무엇인가, 한국현대조각특별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2 형상조각 6인전,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미술의 자화상, 세종문화회관, 서울
프로젝트 4, 광주비엔날레, 광주
현대 문학을 위한 미술인 66인전, 갤러리 라 메르, 서울
천개의 눈, 천개의 길, 관훈미술관/덕원미술관, 서울
2001 한국미술 44개의 퍼즐, 개관 기념전, 갤러리 라 메르, 서울
횡단하는 이미지, 개관 기념전, 갤러리 피쉬, 서울
사불산-윤필암, 학교재갤러리, 서울
2000 새로운 차원을 찾아서-오늘의 한국조각 2000, 모란미술관, 남양주
빛, 종로갤러리, 서울
깃발, 국립중앙극장, 서울
1999 감성과 자유를 그리워하다, 프랑스문화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90년대의 정황, 엘렌킴머피갤러리, 서울
인천현대미술초대전, 인천문예회관, 인천
신도리코문화공간 개관 기념 초대전, 신도리코 문화공간, 서울
웰컴2000: 우리다운 형상조각, 토 아트 스페이스, 서울
문턱을 넘어서, 한원미술관, 서울
형상조각-네사람, 성보갤러리, 서울
야외환경조각공원초대전, 속초

- 홍익조각회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힐우드 미술관, 뉴욕
인천미술 가능성과 제안전2-입체, 해반 갤러리
1998 시간, 기억, 그리고 존재, 갤러리 퓨전, 서울
테마공간-건축과 조각의 만남, 포스코미술관, 서울
드로잉 횡단전, 금호미술관, 서울
인천현대미술초대전, 인천문예회관, 인천
오래전부터...지금까지...계속될 그 존재에 대하여, 종로갤러리, 서울
드로잉의 재발견, 환기미술관, 서울
불확실성의 대한 탐구, 미술회관, 서울
1997 작은 조각, 갤러리서화, 서울
가볍지 않은 자유, 가산화랑, 서울
나눔의 출발전, 갤러리 S, 서울
한국현대조각 초대전, 춘천문화방송, 춘천
제 2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인천현대미술 초대전, 인천문예회관, 인천
시대의 꿈, 종로갤러리, 서울; 인천문예회관, 인천;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1996 소 조각회전, 종로갤러리, 서울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금호미술관, 서울
목암미술관, 고양
동방생명, 서울
안동조각공원, 안동
목포야외조각공원, 목포
경기도미술관, 안산
인천문예회관, 인천
수원월드컵경기장공원, 수원
영주야외조각공원, 영주
사비나미술관, 서울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홍익대학교, 서울

수상

- 2014 제28회 김세중조각상분상
2009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수상
2006 국립현대미술관 '2006 올해의 작가'상
2004 김종영미술관 '오늘의 작가' 선정
월간 미술세계 '올 한해 주목받은 12인의 미술인' 선정
1997 우경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선정